

Microsoft의 Skype 인수합병 효과와 전망

■ 신 호 철*

1. 개 요

2011년 5월 10일, Microsoft(이하 MS)는 Skype를 85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인수합병은 MS의 36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음성·영상통화 서비스 및 스마트폰 시장에서 Apple과 Google에 뒤처져 있는 기존 사업을 Skype를 통해 만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Skype는 전 세계적으로 6억 6,0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2010년에 가입자들이 이용한 음성 및 영상통화 시간이 국제전화 시장의 13%를 차지하는 등 MS의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MS가 고액을 들인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MS가 Skype를 인수함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이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연구원, (02)570-4054, animeshin@kisd.re.kr

2. MS의 Skype 인수합병에 따른 효과

(1) 통합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에서의 경쟁우위 확보

MS는 자사 제품인 Lync에 Skype를 결합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United Communications, UC)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Lync는 인스턴트 메시징, 오디오·비디오 및 웹 컨퍼런스 등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시킨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이다.

MS는 Skype의 음성 및 영상통화 서비스가 Lync 솔루션의 웹 컨퍼런스 서비스를 확장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Forrester는 MS가 개인용 UC 서비스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동안 Skype의 무료 서비스는 QoS를 보장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Lync와 Cisco, Avaya의 제품을 구입해왔다고 지적하였다. 또 MS가 Skype와 Lync 간 게이트웨이 개발을 통해 개인용 UC와 기업용 Lync를 혼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람들은 동료 간 연결에 Lync-Lync를, 개인과 기업 간에 Lync-Skype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MS의 Skype 인수는 통신 네트워크와 모드(mode) 간의 전통적인 장벽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Skype 인수로 MS가 커뮤니케이션 솔루션과 개인, 기업을 통합하는 기술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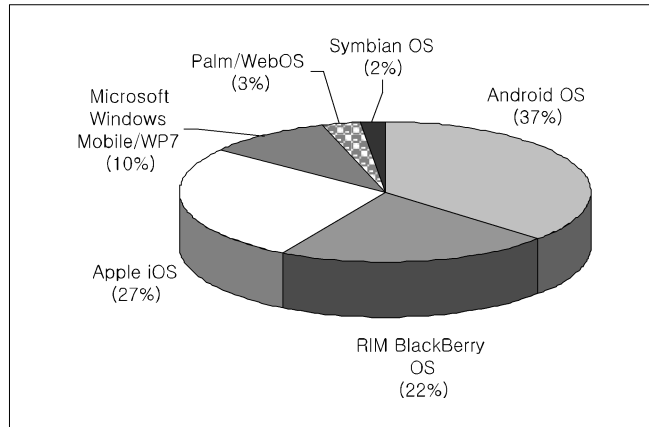
(2) 스마트폰 비즈니스의 성장

이번 인수합병으로 MS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저평가되었던 윈도우폰의 점유율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iPhone과 Android 스마트폰에는 많은 관심을 가져왔지만, 윈도우폰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11년 3월 기준 미국의 스마트폰 점유율을 살펴보면 iPhone이 27%, Android가 37%를 차지한 데 비해, MS의 윈도우폰은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애플

1) Computerworld(2011. 5. 11)

리스트들은 Skype의 비디오 채팅 서비스와 MS의 프리미엄 서비스가 윈도우폰의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²⁾

[그림 1] 미국의 스마트폰 점유율 현황



자료: nielsenwire(2011. 4. 26)

Skype의 비디오 채팅 서비스는 Apple의 Facetime과 달리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MS의 CEO인 Steve Balmer는 MS 제품이 아닌 기기에도 Skype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렇게 되면 Skype 서비스가 비MS 스마트폰 사용자에게도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새로운 소비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MS 제품군과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확대

Lync와 윈도우폰뿐만 아니라 게임콘솔인 Xbox Kinect도 Skype와 결합하면서 시너지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Xbox Kinect는 비디오 채팅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Skype 브랜드와의 합작을 통해 수많은 이용자가 스크린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되었고, Skype 기반의 TV와 TV 호환용 웹캠이 등장

2) The Wall Street Journal(2011. 5. 10)

할 것으로 예상되며 거실에서의 Skype 서비스 구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Skype ID와 Window Live ID 시스템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Skype 서비스가 Xbox Kinect을 통해 TV 스크린에서 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³⁾

Xbox Kinect 외에 Skype 인수로 인해 성장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은 Bing 서비스이다. 현재 MS는 검색 서비스에서 Google에게 밀리고 있으나, Skype를 활용하여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색 마케터들은 Skype와 MS의 제품이 서로 뒤엉키게 되는 상황이 Bing 서비스 채택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Skype의 충성층이 Bing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MS는 Bing 검색에 적합한 콘텐츠를 최적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Brafton News에 따르면 MS는 RIM의 Blackberry 단말기에 Bing 서비스를 검색 엔진으로 탑재한다고 발표하였다.⁴⁾

3. MS의 Skype 인수합병에 대한 평가와 전망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Skype는 MS의 구원투수로서 그동안 저조했던 MS의 사업 확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MS의 Skype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이러한 장밋빛 전망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윈도우폰과 Skype 서비스의 결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MS의 Skype 인수로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와의 관계가 흔들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Skype의 음성 및 영상통화 서비스가 전통적인 유선전화 서비스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MS의 CEO인 Steve Balmer는 기존 통신 사업자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MS의 입장에서는 윈도우폰의 판매를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일부 애널

3) MSNBC(2011. 5. 10)

4) Brafton News(2011. 5. 10)

리스트들은 이미 Verizon과 같은 사업자가 Skype와 제휴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동통신 시장에서 만큼은 MS가 Skype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⁵⁾

한편, 이번 인수합병으로 Facebook이 주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Gabriel Consulting Group은 Facebook이 MS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합병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며, Skype는 MS와 Facebook 양쪽에 모두 이익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Facebook에 Skype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MS에게는 준비된 마케팅 플랫폼을, Facebook에게는 새로운 사용자 도구(tool)를 제공할 것이다. Enderle Group 또한 이번 인수합병으로 Facebook이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Facebook은 Skype를 인수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Skype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MS와 Facebook이 Google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MS가 파트너를 도와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⁶⁾

하지만 MS가 Skype를 통해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Skype는 현재 Apple, Google의 스마트폰 모두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MS는 자사서비스에 Skype를 통합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MS는 Google Voice, Facetime과 서비스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⁷⁾ MS는 Skype 인수를 통해 자사 윈도우폰의 판매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Skype를 경쟁사의 스마트폰에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사업 전략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재 Skype의 모바일 전략으로 볼 때 Apple과 Google에 Skype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MS는 차선책으로 윈도우폰용 Skype와 iPhone, Android 스마트폰용 Skype에 차등을 두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5) The Wall Street Journal(2011. 5. 10)

6) Computerworld(2011. 5. 13)

7) Telecomasia(2011. 5. 11)

4. 결 어

MS의 Skype 인수는 Apple, Google의 2강 체제를 흔드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인수합병은 MS가 Skype를 통해 자사 제품군은 물론,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시장에서 MS와 Skype의 결합은 오히려 MS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MS는 Skype를 인수함에 따라 Nokia, 이동통신 사업자, Apple, Google 등 관련 사업자와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Nokia와는 Skype에 최적화된 스마트폰 단말기 출시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하며, 이동통신 사업자의 유선전화 서비스와 Skype의 경쟁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Apple, Google과는 Skype 서비스 제공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MS는 음성 및 영상통화 서비스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인수합병은 MS의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운명을 판가름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MS의 Skype 인수에 대해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이 공존하기 때문에, MS가 Skype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 《Brafton News》 (2011. 5. 10), “Microsoft buys Skype: Broadened Bing Access?”.
- 《Computerworld》 (2011. 5. 11), “Microsoft’s Skype buy could boost unified communications”.
- _____ (2011. 5. 13), “Microsoft, Facebook could use Skype against Google”.
- 《MSNBC》 (2011. 5. 10), “Xbox Kinect could be Skype killer app”.
- 《nielsenwire》 (2011. 4. 26), “U.S. Smartphone market: Who’s the most wanted?”.
- 《Telcomasia》 (2011. 5. 11), “Skype’s new mobile dilemma”.
- 《The Wall Street Journal》 (2011. 5. 10), “Skype may boost Microsoft’s smartphone business”.